

도서관,  
아이들과 꿈날개 펼치다  
#서울 금천구 #어린이 특화

## 은행나무 어린이도서관



천천히 가지만 마을 안에서 작은도서관의 운영모델이 되는 곳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은 2002년 9월, 금천동화읽는어른모임 '함박  
웃음' 회원들의 열정과 그 뜻을 지지해준 이들의 정성으로 문을 열  
게 되었습니다. 십시일반 돈과 책을 모아,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  
는 온돌방인 어린이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어린이책을 읽고 공부하는 활동을 통해서 성장, 변화하는 곳  
나와 내 아이를 위해서 책을 공부하던 이들이 점차 도서관의 활동가  
가 되고, 지역의 책임어주기 강사가 되는 등 점차 역량이 키워지고  
있습니다.

동네 한가운데의 900년 된 은행나무의 속깊음을 닮고 싶은 곳  
마을에 큰 일이 있을 때 서로 만나 격려하던 바로 그 장소, 우리 동  
네에는 9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단순한 나무가 아닌 마을의  
중요한 거점이고 마음의 안식처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행나무어  
린이도서관이고 싶습니다.



**특화지원사업과 함께한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의 2017년은 어떠했나요?**

안전하고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곳. 바로 특화지원사업을 결심한 계기입니다. 42년 된 노후화된 건물이어서 안전 문제로 고민을 했습니다. 이용자 서비스를 제대로 하려면 안전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첫 번째 조건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뭘 때마다, 지하 창고에 세 개의 철기둥이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늘 불안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어린이도서관’이었습니다. 어린이책을 읽다가 어린이도서관을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요구



▲ 2002년 10월 26일 은행나무의 아이들



▲ 2017년 5월 27일 은행나무의 아이들

되는 도서관의 역할이 있기에 마을의 작은도서관 역할에 치중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외부로 돌렸던 그 시야를 다시금 안으로 돌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다시, 어린이’라는 생각으로 어린이특화를 결심했습니다.

‘도서관, 아이들과 꿈날개 펼치다’라는 사업명은 어린이도서관으로서 우리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개관한지 15년이 되었지만 회원들의 열정만으로 이끌어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컸습니다. 그 현실을 이겨내는 방법은 우리가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느냐를 다시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차, 특화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은 기쁘고 축하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하려니 도서관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고 먼지 날린다고 민원을 낼 것 같고, 주민들한테도 새로운 변신을 시도한다고 소문도 내야할 거 같고, 부족한 공사비를 우리 힘으로 보태기도 해야겠고, 회원들의 마음 모으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두깍아 두깍아 헌집 줄게 새집 지어 같이 살자’ 바자회를 했습니다. 특화지원사업에 선정되고 한 달도 채 안 된 일입니다. 도서관 회원만이 아니라 마을주민들의 마음도 모았습니다.



더운 날 땀을 빼질빼질 흘리면서도 모두 즐겁게 일을 해서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마을의 많은 분들께서 팔 물건을 후원 해주셨고, 직접 목을 쭈어서 가지고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바자회 전날에는 육개장도 끓이고, 알타리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모두 솔선해서 해준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고춧가루, 새우젓, 소금까지도 각자 집에서 조금씩 내어 놓았죠. 당일에는 더운 날 부침개를 부치고, 청소년은 직접 만든 아이스바를 판매하고, 한쪽에서는 다육이 화분 만들기, 네일아트를 하고, 팝콘도 튀겨 판매했습니다. 모두 안전한 도서관이 되도록 기원했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는 분위기를 내자!’라는 의미로 ‘골목길 가꾸기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마을주민들과 고등학교 미술부 학생들과 함께 벽화를 그렸습니다. 쓰레기가 버려졌던 곳에는 예쁜 ‘말



걸기 벽화'를 그렸고, 화분들을 주렁주렁 달아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도서관 옆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물을 주며 가꾸고 계십니다. 또 매주 목요일에는 골목길 청소를 하는데 할아버지 한 분은 늘 빗자루를 들고 나오셔서 같이 골목길을 쓸기도 합니다.

그렇게 특화지원사업을 진행해가는 데에 특화지원사업 컨설팅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공사 경험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특화지원사업에서 맺어준 정환수 소장님께서 하나하나 코치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했고, 리모델링 업체와 결정해야 할 어려운 일들도 조정해주셨고, 정환수 소장님 아니었으면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용에 대한 컨설팅도 귀한 기회였습니다. 춘천 담작은도서관 김성란 관장님께서 오시기도 했고, 저희가 직접 춘천 담작은도서관에 가서 구경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책을 읽어보고 제적을 해야 하는데 그 작업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책을 읽게 해야지 활동을 위주로 하는 것은 지양할 것, 초등 고학년을 도서관에 오게 할 내용을 고민할 것 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았고, 상황이 달라서 고민을 더 해봐야 할 것들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공사가 끝난 후, 공간의 변화는 이용자 증가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공동육아 엄마들이 정기적으로 도서관에 와서 아이들과 놀고 갑니다. 영유아를 둔 공동육아 엄마들은 구립도서관에



▲ 안전을 위한 지붕 공사



▲ 내부 공사 중의 모습



▲ 공사 후의 도서관 외관

서는 눈치가 보여서 못가고, 다른 작은도서관의 환경도 아기들과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에서는 분리된 공간에서 엄마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니까 편안하게 아기들과 놀다가 갑니다.

도서관 바로 옆 탑동초등학교 아이들은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에 가면 책도 보고 숨바꼭질도 하면서 놀 수 있다고 소문이 난듯해요. 아이들이 오면 방명록에 이름 쓰고 가방을 한쪽에 놓고, 다다닥 2층으로 올라갑니다. 책을 보느라고 조용한 아이들도 있지만 숨바꼭질 하고 놀거나 누워서 똥굴거리며 노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놀려고만 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책과 친해지게 할까 이리저리한 방법을 써 보고 있는 중입니다.

내적으로도 자원 활동가들이 오래도록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방법과 장서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변화가 많아서 이용자가 확대되어 기쁘지만 신입회원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도 적고, 끝까지 남는 사람 또한 그 수가 적습니다. 회원들의 동력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입장이라 이 부분은 큰 고민입니다.



이렇게 특화지원사업의 긴 여정을 거치며 있었던 일들 중 ‘미안마 목걸이’에 대한 일화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미안마로 불리는 버마는 1988년 8월 8일, 군사독재에 대항하는 큰 항쟁이 있었습니다. 네투나잉씨와 도서관을 방문한 마웅저 아저씨들이 그때 멤버들입니다. 죽음을 피해 일단 고국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가지 못해 한국에서나마 열심히 고국의 민주화를 위해 애썼습니다. 네투나잉씨는 정말 젊음을 바쳐 일했지만 안타깝게도 병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목걸이는 네투나잉씨 누님이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박은홍 이사님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박은홍 이사님은 민주화를 바랬던 간절한 마음과, 그 간절한 마음을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나누어 온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을 위해 목걸이를 바자회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누고자 하는 마음의 가치를 아시는 분이 목걸이의 가치도 알아봐 주시길 기대했습니다. 바자회는 시작되었고, 목걸이의 주인은 한참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목걸이에 담긴 사연을 듣고 선뜻 구입해 주셨고, 하나의 목걸이를 여러 개의 목걸이로 나누어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식구들의 목에 하나씩 걸어주셨습니다.

미안마 목걸이는 지금 우리들의 목에 걸려 있습니다. 버마에서 우리나라로,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으로, 마음 고운 이에게로, 다시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의 모두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목걸이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 역시 잊지 못할 것입니다.



##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의 2018년은 어떠한가 요?

2017년에는 마을의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골목길 가꾸기’ 프로젝트가 그 예죠. 시흥5동사무소를 비롯해 마을계획단과 금미동 사람들, 관내 고등학교 미술부 학생들, 이웃 주민들이 함께했습니다.

다른 지역 마을활동가들도 찾아옵니다. 도서관과 마을이 어떻게 연계되어 활동하고 있는지 견학 프로그램으로 찾아오고, 관내 초등학교 선생님들,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전환기에 있는 6학년 학생들이 단체로 도서관에 탐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공간이 비좁아서 견학 문의가 오면 거절을 하던 형편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도 수용가능하게 된 것이 기쁜 일입니다.

2018년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의 화두는 ‘어린이’입니다. 안전한 공간이 되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되었으니 아이들이 와서 책도 보고 재미있게 놀고 쉬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일상적으로 책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책임는어른 ‘함박웃음’회원들은 어린이 책임기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책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공사 후의 2층 내부 모습

**특화를 고민하는 다른 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책임감과 수많은 서류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이는 한걸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새로운 준비가 아니라 지금 잘 하는 것을 특화함이 더 힘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경험을 보니 뭔가 특별한 것 보다는 잠시 접어두었던 것을 한 번 더 살피는 귀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옆에 있을 수 있으니 주변을 먼저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들겠지만 도움의 손길이라는 것이 그저 돈을 주는 관계가 아닌 이런 시시콜콜한 뒷이야기를 궁금해 하는 우리의 '동지'들의 도움이고 격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특화를 고민했던 은행나무 활동가들 스스로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각자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모여 멋진 일들을 이루어 내는 은행나무 가족들, 혼자보다는 함께 큰일을 이룸을 알게 해 준 멋진 회원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댓가를 받지도 않는데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지만 그거야말로 우리를 움직이고 지탱하는 큰 힘이고 자랑입니다. 고맙습니다.

